2014. 11. KLERA News Letter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보

제51호

韓國雇用勞使關係學會報

사무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한국노동연구원
총무이사 김기선
TEL : 02)3775-5634
FAX : 02)784-7684
Email : kirra.or.kr@hanmail.net
발행인 : 회장 김 동 원

Korea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KLERA)

홈페이지
http://www.klera.or.kr/

인 사 말

김 동 원(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25대 학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가 뜨겁던 1989년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주도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노사관계, 노동경제, 노동법 분야의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한 학술단체로서 지난 25년간 한국사회가 당면한 노동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노동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여 거의 매일 같이 구조조정, 통상임금, 정년연장, 시간제일자리, 근로시간단축, 고용율 70% 등 당면현안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용과 노동 문제의 중요성이 지난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는 이 시기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이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짐을 절감하게 됩니다. 모쪼록 회원님들께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모두 완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2015년 6월까지 1년간의 임기를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첫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노사관계, 노동경제, 노동법의 세 학문분야가 접점을 이루는 최대 공약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노력여하에 따라 밀접 3개 분야의 학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학문적 확장 가능성이 큰 학술 모임입니다. 특히 양극화 현상의 직접적 영향으로 고용과 노동문제의 시급함과 중요함이 어느 때보다 커진 현 시점에서 노동 관련 분야의 학문적 잠재력도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시대적 임무에 부응하여 노동과 고용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학술모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학문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노동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학문의 미래를 책임질 학문후속 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대학원생들과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018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International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 Association, ILERA) 세계대회 (World Congress)의 준비 작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 노력을 적극 경주하겠습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의 한국유치는 지난 20여 년간 본 학회가 기울여 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2004년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의 아시아대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세계대회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여 시간과 노력

을 투자한 결과 드디어 2012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 세계대회에서 한국에서 2018년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대회는 세계와 한국의 노동관련 학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큰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세계대회는 한국의 우수한 학문수준과 정책역량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의 모범적인 노사관계사례도 널리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행사가 한 번의 큰 잔치로 끝나지 않고 한국의 노사정과 학계, 그리고 학문후속세대를 자주 고무하여 한국의 노동 관련 학문의 수준이 크게 도약하고 저변이 확충 되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장단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은 회장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학회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있어야 달성가능 할 것입니다. 모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학문적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nternatinal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ILERA) 8th 미주지역대회 참관기(8th Regional Congress of Americas)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신민주연구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산하 미주지역대회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2014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남아공, 케냐 등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도 참석하였다. 2015년 World Congress 개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학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지난해 암스테르담 대회에 이어 이번 콜롬비아 미주지역대회에도 대거 참석한 점이 눈에 띄었다. 2018년 World Congress의 개최국인 한국에서는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겸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차기 회장(ILERA President-elect),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고려대 연구교수, 신민주 고려대 박사과정 등 모두 4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지역학회에는 세계 곳곳에서 1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번 지역대회는 주최측에서 등록비를 받지 않고 각국의 노사관계학회 회장이나 저명 학자 등 개별적으로 초청된 학자들만을 위주로 진행하여 평소보다 참가자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참가자의 면면이 보여주듯이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발표가 많았다. 총 11개의 세션(52편의 논문)과 10차례의 plenary panel, 2회의 keynote 강연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회의 블럭(진행시간 2시간)당 최대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회 진행은 스패니쉬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동시통역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최국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소재 대학에서 치러졌다.

개회식은 JORGE TADEO LOZANO 대학 내 Fabio Lozano 홀에서, 나머지 행사는 CENTRAL 대학 소재 보고타 극장(Teatro de Bogota)에서 진행되었다.

8월 13일 개회식은 콜롬비아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로 시작되었다. 곧이어 Martha Elisa Monsalve Cuellar 회장을 포함한 ILERA 콜롬비아 미주지역대회 운영진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고용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 검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대안이 모색된 자리였다. 이번 컨퍼런스의 모토는 “연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의 고용관계의 의미와 역할(How can labor relations contribute to increase solidarity, cohesion,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ity in the world of work)"이었다. 개회식 keynote 강연은 Georgia State University의 Bruce E. Kaufman 교수와 고려대 김동원 교수가 맡았다. Kaufman 교수는 상생의 고용관계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음양(음과 양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철학)을 지목했다. 고용관계의 균형을 강조하는 김동원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고용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아시아 고용관계의 미래를 조망하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고용관계 학문영역에서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여 초청된 두 학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개회식 직후 리셉션에서 많은 학자, 정부관계자, 대학원생들이 두 학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ILERA 8th 미주지역대회 참가한 한국 연구진
(우측부터 이정훈 고려대 연구교수, 김동원 교수(국제고용관계학회 차기회장), 송민수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민주 고려대 박사과정)



ILERA 8th 미주지역대회 리셉션(2014. 8. 13, Universidad Jorge Tadeo Lozano)
우측 두 번째 Bruce E. Kaufman 교수(미국 조지아주립대), 우측 세 번째 김동원 교수(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차기 회장)

8월 14일부터 보고타 극장(Teatro de Bogota)에서 본격적으로 발표와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미주대회에서 특이한 점은 학회가 무척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첫 세션은 아침 7시에 시작되었다. 콜롬비아에서는 학교 수업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출근시간이 아침 7시다. 콜롬비아 사람들은 대체로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제도를 가진 나라임을 보여주듯이 인구 800만이 거주하는 보고타 내에만 200개 이상의 대학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었다. 대학과 도서관,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보고타는 '남미의 아테네'란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학회의 전반적인 진행은 고용관계 또는 노동법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았다. 그들은 시종일관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성심성의껏 참가자들을 배려했다.

8월 14일 컨퍼런스는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멕시코 등 주로 남미의 학자, 변호사, 정부관계자 등이 자국의 노동현실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논하는 시간이었다. 발표 및 토론 대부분이 스페인어로 진행되었으며, Janice Bellace, Anil Verma, 이정훈 등 세 사람만이 영어로 발표했다. ILERA 전 회장인 벨라체 교수(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는 근로자 인권(Human Rights for Workers)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는데, ILO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남미 전반의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Anil Verma 교수는 노동유연화・비공식화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의 흐름을 브라질과 인도 두 나라의 국가비교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고려대 이정훈 연구교수는 인천공항공사 사례를 통해 한국 공공부문의 고용외부화 경향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ILERA 8th 미주지역대회 프리메라 세션(2014. 8. 14, Teatro de Bogota)

8월 15일 컨퍼런스는 전날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콜롬비아, 과테말라, 파나마, 칠레, 브라질, 푸에르토리코,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등 남미의 학자들이 자국의 노동현실을 밝히고, 연구과제 소개와 더불어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특히 파라과이의 한 학자는 자국 내 심각한 아동노동착취에 대해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한 내용을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참석한 많은 청중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자국의 어두운 노동현실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학자의 노력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이 날은 한국노동연구원 송민수 박사의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노동쟁의 조정인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발표를 하였다. 송 박사는 "페르난도 보테로(화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작가), 하메스 로드리게스(축구선수)의 땅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는 인사로 말문을 열었고 청중들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었다. 자국의 문화·예술과 스포츠스타에 대한 이들의 자부심은 매우 대단한 것으로 보였다. 세션 말미에는 진행자의 발표내용 요약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콜롬비아 메데진 EAFIT 대학 Maria 교수는 한국에서 조정이 어려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이 대한 대답으로 임금이슈에 비해 고용조정이슈, 행위자들의 경험 부족, 올바른 리더십과 전략, HR·IR제도의 부재, 노사간 또는 노노간 정보비대칭 등의 요소가 답변으로 제시되었다.

8월 16일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향후 남미 국가들이 극복해 나아가야할 과제, 고용관계 학문분야가 나아가야할 방향, 그리고 현장에서 실천되어야할 부분 등이 전체적으로 조망되었다. 이번 학회 전체 논문을 요약·평가한 ILO의 Humberto Villasmil Prieto 박사는 남미의 고용관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기 위한 과제로 노사정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사회적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콜롬비아 군인들로 구성된 군악대 '오빠밴드'의 흥겨운 무대를 끝으로 ILERA 8번째 미주지역대회는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8차 미주지역대회는 남미 고용관계 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큰 수확이었다. 아울러, 학회가 남미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보고타에서 열리면서 세션이 없는 일정에는 마르케스센터, 보테로박물관, 금박물관, 몬세라테, 라칸데라리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 학회 진행자들의 순수한 열정이 돋보였이고 이국적인 문화를 흠뻑 느낄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학회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용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에 깊은 위안을 안겨 주었으며, '나는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은 사람이다'라는 마음가짐을 되새기게 해 주었다.

2014년 하계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2014년 하계학술대회가 6월 18일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 시 : 2014년 6월 18일(수) 13:00~18:0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
□ 주 최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년 하계정책토론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2014년 하계정책토론회가 8월 27일 "통상임금과 임금교섭 :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 시 : 2014년 8월 27일(수) 13:00~18:00
□ 장 소 :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주 최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 우리 학회의 2014년 추계학술대회는 "청년실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14년 10월 28일(화), 13:30~ 17:5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 주 제 : "청년실업, 어떻게 할 것인가?"

학회 회원 자격의 조정

◎ 학회 회원의 자격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반회원'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 정회원 자격은 매년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하거나, 평생회비 30만원을 납부한 회원에게 부여합니다.

◎ 학회 저널('산업관계연구')에 투고는 정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나 일반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 10만원의 투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학회 저널은 정회원과 투고료를 납부한 일반회원에 한하여 배포합니다.

◎ 학회 회비와 투고료 납부를 위한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비 및 투고료 납부 계좌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금주: 한국노사관계학회)

임원의 학회 기여금 조정

◎ 학회 회장단, 상임이사 및 이사는 모두 '정회원'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하며, 학회 부회장은 연 10만원, 이사는 연 5만원의 별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상임이사의 경우 학회 활동 기여도를 고려해 정회원 회비 및 기여금을 면제합니다.

회원가입방법 안내

◎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사무국 간사(윤희상 : 010-5580-4088)에게 연락하시거나, kirra.or.kr@hanmail.net으로 가입신청서를 보내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학회 회원들께는 연간 발행하는 「산업관계연구」와 「소식지」가 발송되며, 저희 학회주관 학술대회와 관련된 각종 Proceedings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칙에 의거하여 3년간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25대 임원진 명단

◎ **회장: 김동원**(고려대 경영학)

◎ **수석부회장:**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

◎ **부회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현(민주노총), 노용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유성재(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응(경영자총연맹), 이명관(LG),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이정(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정일(삼성경제연구소), 정형중(현대자동차), 조돈현(SK)

◎ **편집위원회**

위원장: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

◎ **감사**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명숙(전남대 경영학)

◎ **상임이사**

총무: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김혜진(세종대 경영학)
기획: 강창희(중앙대 경제학), 권순식(창원대 경영학), 김동배(인천대 경영학)
연구: 김기승(부산대 경제학), 박희준(서울대 경영학)
학술: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 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사**

강순희(경기대 직업학), 권상순(선문대 경영학), 권 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광현(고려대 경영학), 김기태(상명대 경영학), 김동헌(동국대 글로벌경제통상학), 김병식(경기대 경영학),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김영기(LG), 김영문(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조(부경대 경영학), 김우영(공주대 경제통상학), 김인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구(명지대 경영학),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 김진영(고려대 경제학), 김홍영(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환일(한국경영자총협회 인재개발원),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기철(충북대 경제학), 류장수(부경대 경제학), 문무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박상언(충북대 경영학), 박용승(경희대 경영학), 박우성(경희대 경영학), 배종석(고려대 경영학), 서정해(경북대 경상대학), 손동희(한국노동연구원), 송강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은종(단국대 경영학), 안지영(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양동훈(서강대 경영학), 오계택(직업능력개발원), 원창희(한국조정중재협회), 유경희(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유규창(한양대 경영학), 윤윤규(한국노동연구원), 이규만(상지대 경상대학), 이달휴(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훈(중앙대 사회학), 이승길(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협(대구대 사회학), 이영면(동국대 경영학), 이영호(배제대 경영학), 이을터(군산대 경영학), 이인석(서강대학교 경영학), 이재훈(영남대 경영학),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지만(연세대 경영학), 이형오(숙명여대 경영학), 이호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동(민주노총), 이호창(노사발전재단), 임상훈(한양대 경영학), 장상수(삼성경제연구소),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 전상길(한양대 경영학), 전윤구(경기대 법과대학), 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선욱(서강대 경영대학), 정이환(서울과학기술대 교양학부), 정주연(고려대 경제학), 정진화(서울대 농경제사회학), 조동훈(한림대 경제학), 조봉순(서강대 경영학), 조상균(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조용만(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진숙경(경기교육연구원), 최종인(한밭대 경영학), 최창곤(전북대 경제학), 최형재(고려대 경제학), 한광현(전주대 경영학), 한수진(호서대 경영학),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